

## 침이 절로 도는 건강과일 '백운산 참돌배' 아시나요

2008년 백운 배+일반 배 접목  
육곡농협서 개량 목목 첫 보급  
광양 42농가 매년 100t 생산

올 농사 풍년에 가격하락 예상  
내년초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  
市, 대대적인 판촉운동 나서



### '백운산 참돌배'는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칼슘·단백질·비타민C 풍부
- 배즙·효소 등 쓰임새 다양
- 유해균 번식 억제·항암 효과
- 이노·기침 해소에도 탁월



광양 '백운산 참돌배'를 아시나요?

광양시가 풍작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백운산 참돌배' 판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대도시 명절선물, 상품거래소 직거래 장터를 내년 2월중 개최해 소비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또 다중시설 등에 판촉물 1만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잔량은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배즙으로 연중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참돌배 맛보세요=광양시는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227곳 시군구), 기업체 417곳에 참돌배 사주기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광양시 직원들이 술선택해 250박스 500만원 상당을 자체적으로 구입했다.

또 관내 공공기관, 기업, 출향인사, 자매결연도시에 백운산 참돌배 홍보와 판매 협조요청을 보내 판로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백운산 참돌배'는 백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자생하는 백운 배를 일반 배와 접목시켜 탄생했는데 현재 42 농가, 20ha 면적에서 매년 100여t이 생산되고 있다. '백운 배'는 산림과학원 조사에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돌배 중에서도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으며,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했다.

올해 참돌배 풍작은 백운배 연구회에서 고품질의 참돌배를 생산하기 위해 열매가 맺을 때부터 낙과 방지를 위해 영양제 공급과 해충 방제, 겨울에는 코팅제 도포 등 병해방지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이다.



광양 '백운산 참돌배' 재배 농업인이 수확한 참돌배를 분류하고 있다. 참돌배는 백양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백운 배'와 일반 배를 접목시켜 만든 품종으로, 일반 배보다 크기는 작지만 비타민C 등 성분이 풍부해 이노와 기침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건강에도 좋아요=참돌배 재배는 지난 2008년 육곡농협이 최초로 접목시켜 개량한 목목을 육곡면 농가에 보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운산 참돌배는 배즙이나 효소, 증탕,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김장철 김치속 재료로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과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또 백운산 참돌배는 장내 유해균 번식 억제와 항암, 항염, 항산화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배즙이나 증탕, 효소, 차를 만들어 마시면 감기예방 및 천식이 있는 애연가들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참돌배는 일교차가 큰 산지에서 재배 및 생산되고 있어 칼슘, 인, 단백질, 비타민C가 풍부해 제독, 이노, 가래, 기침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가공시설 등 확충=광양시는 장기적 수급조절용 저온 저장시설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GAP 인증 등 품질 고급화로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표 농산물로 활황기 위해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건강식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여수시 김재복 계장은 "통상 야생 돌배는 직경 4~5cm인데 참돌배는 7~10cm 크기로 일반적으로 만들어 음료로 먹고 있다"면서 "위생적으로 가공해 공식 상품화에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797-2381).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만권경제청 여수화양지구 개발 내년 초 신규 투자자 국제 공모키로

일상해양산업 투자 미흡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 공모를 통해 여수 화양지구 국내의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여수 화양지구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일상해양산업이 지난 10여년 동안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부지를 사들이고도 실제 투자는 골프장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쳐 부동산 기업에 특혜만 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양 경제청은 지난 2003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 9.99km(302만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어 2004년 통일그룹 산하 일상해양산업과 협약을 맺고 화양지구 일대에 2015년까지 1조4435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화양면 장수리와 화정면 사도·낭도 일대를 5개 지구로 나눠 마리나 시설, 골프장, 호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리조트 등을 건립해 세계적인 종합 해양관광단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협약 완료 1년여를 앞둔 현재 일상해양산업이 투자한 금액은 194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사업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투자한 금액도 대부분 토지매입비(734억원)와 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것이며, 실제 관광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부터 영입에 들어간

18홀 규모의 디오션CC(938억원)와 연수원이 전부다. 일상이 전체 사업 부지의 70%인 200만평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골프장과 연수원 등 실제 투자는 전체 계획의 15%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양 경제청은 일상해양산업이 더는 투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규 투자자 모집을 골자로 한 활성화 방안 수립에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이달 중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내년초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신규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 투자자를 찾으면 일상해양산업이 호텔 등으로 개발을 계획한 부지(78만평)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224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매입 과정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18억3200만원의 조세감면을 비롯해 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화양지구 간선도로(7.78km) 공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일상해양산업에 특혜만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협약대로 투자하지 않는 일상 측에 대해 제재할 어떤 수단도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투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제 공모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 4기 블로그 기자단 24일까지 모집

광양시가 오는 24일까지 주요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광양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제4기 광양시 블로그 기자단' 7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광양시에 관심이 있고 블로그를 포함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시의 주요정책은 물론 축제, 숨겨진 비경, 미담사례 등 생생한 지역소식을 취재해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광양시는 블로그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우수 활동 블로그기자 시장 표창 ▲축제, 행사 및 각종 시설 취재 지원 ▲홍보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또는 광양시 블로그(gwangyangsi.blog.me)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joengsh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 3년여 만에 광양시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6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시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원천	371-9818
윤곡	961-2339
중암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군산시	0631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정읍시	0631531-5544	서울보급소	021313-5962

이농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